

843억 확보 장성읍시가지 성산지구 수해 막는다

환경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빗물펌프장 3곳 신설, 우수관로 개량

장성군이 장성읍시가지, 성산지구가 30일 환경부 ‘2025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에 지정돼 국비 등 사업비 84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간 장성읍시가지(장성지구)와 성산지구는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하천 수위 상승, 하수도 용량 부족 등의 문제를 겪으며 생활권 침수 피해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장성군은 해당 지역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필요 서류를 갖춰 환경부에 정식 요청했다.

환경부는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침수 피해 정도, 사업 추진 시급성 등을 종합

적으로 판단해 30일 장성군 포함 전국 15개 지자체, 17개 지역을 올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발표했다. 장성군은 총 사업비 843억 원을 투입해 빗물 배출의 ‘엔진’ 역할을 하는 빗물펌프장 3곳을 장성읍시가지·성산지구에 신설할 계획이다.

빗물이 배출되는 ‘우수관로’는 직경을 넓히고 노후 관로를 정비하는 등 총 9.5km 규모에 걸쳐 대대적인 개량에 나선다.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2027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환경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으로, 장성읍시가지와 성산지구 수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기상 이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군민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 남면과 북일면이 오는 1일 소규모 마을축제를 연다. 남면은 단감과 안평쌀을 주제로 한 ‘단감이랑 안평마(미)랑’ 축제를 준비했다.

북일면은 ‘하늘을 감동시킨 효자’로 알려진 서능 선생의 출생지라는 점에 착안해 ‘효사랑 축제’를 선보인다.

우덕현 기자

남원시 종이 없는 스마트 회의 실효성 ‘엄지 척’

페이퍼리스 행정 정착으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성과내

남원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격적으로 추진해 온 ‘종이 없는(paperless) 스마트 회의시스템’이 탄소중립 실천과 행정 효율성 극대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미래형 스마트 선진행정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 2년 동안 종이 문서 위주 회의방식을 탈피하여 태블릿 PC를 활용, 매달 평균 20회 정도의 각종 회의 및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회의 참석자들은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스마트 회의시스템에 공유하고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확인, 논의 내용을 디지털로 즉시 기록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으며, 종이 자료

준비에 소요되던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행정력을 감소시켰다.

또한 종이 사용 감축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 탄소중립 행정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탄소연감 네트워크 2022에 따르면 A4 용지 한 장을 줄일 때 약 24.48g(생산 2.88g + 인쇄 21.6g)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고, 노트북 1시간 사용시 종이 1장 인쇄를 하는 것보다 탄소 배출량을 1/30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스마트 회의 운영은 단순한 회의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남원시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 표명이자

스마트 행정도입의 디지털 혁신사례”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페이퍼리스 행정 정착 이외에도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관리 ‘농부’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디지털 혁신을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 태블릿 PC 80대를 구입해 전 부서에 배부했으며, 종이 없는 회의 본격 시행하는 등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 행정업무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남원시는 ‘청년마루’의 한 해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2025 남원 청년마루 성과공유회 & 청년네트워킹 데이」를 11월 1일 남원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

신승민 기자

정읍 내장산 문화광장 방문객 17% ‘깡충’ 증가

지난 9월 1일 새롭게 문을 연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가 개장 약 3달 만에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다.

정읍시가 방문객 통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놀이터가 위치한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개장 전후 약 3달간의 방문객 통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시간대별 방문객 분석 결과, 평일에는 일평균 약 2000명, 주말·공휴일에는 약 7000명 이상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이용객이 집중돼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방문 추이를 주시 평균과 비교한 결과, 거주지를 물론하고 10대 이하 주이용층과 30~40대 주이용층의 방문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기적의 놀이터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주, 광주, 익산, 군산 등 외지인들도 많이 찾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기적의 놀이터는 내장산 문화광장 일대의 관광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놀이터가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실내 복합 놀이시설인 천사하이어즈 등 지역 명소들과 인접함에 따라, 하루 또는 1박 2일 코스로 방문하는 체류형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분석 결과는 새로 단장한 기적의 놀이터가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방문객 특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60실 이내 기업임주공간인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함께, 신정동 연구개발특구의 3대 정부출연기관·미생물센터의 바이오산업 기술사업화 지원기능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영민 기자

옥광밤·눈꽃복숭아 수도권소비자 사로잡다



순창군은 30일 서울 양재 하나로유통센터에서 ‘순창 옥광밤·눈꽃복숭아’ 홍보 판촉행사를 개최하고,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차별화된 품질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순창군이 후원하고,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 주관한 가운데,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관내 조합장, 농협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해 순창 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판촉 활동을 전개했다.

행사장에서는 옥광밤과 눈꽃복숭아

를 활용한 시식 행사가 진행되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복숭아와 달밤떡, 견고추, 생강 등으로 구성된 ‘순창의 맛’ 패키지가 방문객들에게 증정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한여름에 만 볼 수 있었던 복숭아가 가을에 다시 나와서 신기하다”, “순창 농산물은 정말 맛이 좋고 품질이 뛰어나다”는 반응을 보이며, 순창산 농산물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한, 행사장에는 순창 농산물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과 X배너가 설치되어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으며, 현장 시식과 설명을 통해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하며 순창 농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군은 이번 판촉행사를 통해 수도권 소비자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유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통망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행사는 순창의 우수 농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순창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통사찰 일광사(주지 선동 스님)는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에 거주하는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하는 ‘효도 밥상 공유 행사’를 열었다. 선동 스님은 “소박하지만, 종교인으로서 제 삶을 되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꾸준히 수행에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세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신승민 기자

전남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위 출범!

1조 2천억 규모로…정관계·학계·연구계 등 120여명 참여 나주 유치 올인한다



전라남도는 30일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산·학·연 기관과 함께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위원회를 출범, 성공적 유치를 통한 미래 핵융합 에너지 기술의 핵심 거점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노승정 단국대 명예교수, 김영선 전남연구위원장,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나주를 ‘대한민국 인공태양 연구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치위원회는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공동위원장 2명과 집행위원장 5명을 포함해 현역 국회의원, 언론사 대표, 향우회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대학 총장, 기업체 대표, 과학기술 관련 국책연구기관장 등 1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노승정 단국대 명예

교수, 박원석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이 맡는다.

유치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집행위원장은 박진호 한국에너지공단 총장 직무대행, 나용수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김기만 한국에너지공사 무등일보 대표이사가 나선다.

유치위원회는 앞으로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를 위해 ▲유치 당위성 대국민 홍보 등 유치 의지 역량 결집 ▲전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 ▲전남지역 대학, 기업, 연구기관과 공동 유치 노력 ▲정부·국회 협력체계 강화 등 종합적인 역할을 한다.

유치위원회는 이날 결의문 낭독을 통해 “인공태양은 인류 미래 에너지를 책임질 국가 전략기술로, 정부의 적극적 육성시 필요하다.

전남 유치는 국가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

공태양 연구시설의 전남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민 모두의 뜻을 모아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전남에 유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공태양은 전남이 미래 핵융합 에너지 기술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기술”이라며 “전남은 한국에너지공대와 한전 등 670여 전력기업이 집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보유한 핵융합 연구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민관이 함께하는 유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도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전남에 유치되면 전문 인력 유입, 관련 기업 집적 등으로 2050년까지 200개 이상 기업 유치, 1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등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인공태양 연구시설 공모를 발표하고 제안서 심사, 현장심사, 발표평가를 거쳐 11월 중 인공태양 연구시설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전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직접 피해보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점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우덕현 기자

무주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임대주택 확보

(주)수푸름과 업무협약, 28세대 확보, 최대 5% 이자 지원



임대 계약 또한 임대인인 (주)수푸름이 담당한다.

김성욱 과장은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임대주택은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맞춤형 지원이 청년들을 무주로 부르고, 이들이

정책해 가정을 이루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반공급 임대주택도 추가 공급되는 만큼, 주민들의 주거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서주 기자

지역·연고 의원협의회 국가예산 공조체제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및 연고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2026년도 국가예산 국회단계 증액 확보를 위한 전방위 공조 체제를 본격 가동한 것이다.

오전 지역 국회의원 협의회와 정오 연고 국회의원 협의회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김관영 지사는 도정 주요현안과 부처별 건의사업을 공유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국회단계 증액이 필요한 주요사업의 역할분담을 모색했다.

효과적인 연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도는 올해 정부안 9조 4585억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새만금·AI·문화·

복지 등 핵심 분야에서 과소·미반영된 70대 중점사업의 국회단계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AI 융합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건립 ▲협업지능 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조성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건립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국립이산식품박물관 건립 ▲동물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기초연구인프라 연구시설 구축 ▲AI 기반 차세대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 등 지역구별 핵심사업이 집중 검토됐다.

전북의 미래 성장축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도 함께 다뤄졌다. 여기에는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RE100 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제정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조성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인프라 구축부지 유치 공모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부지 선정 ▲자산운용 중심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등이 제시됐다. 도는 향후 국회 예결위와 상임위 단계별 심의 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도지사·부지사·실국장 역할분담체계를 중심으로 기재부 및 국회 주요 인사 면담 활동을 전개한다. 국회 상주반 운영과 도·시군·정치권 간 현장 대응 체계를 통해 심의 과정에서 즉각 대응 가능한 구조도 유지할 방침이다.

이상호 기자